



+ 정종완 · KBS 기술관리국 기술기획팀



유럽의 고전 베로나시티와 함께하며



[Verona시 상공]



[공연시작 상공 모습]

이탈리아 베로나시 상공을 지나다 보면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는듯한 착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레나(ARENA) 원형경기장이다.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더 멋진 고대 경기장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글래디에이터 등이 촬영되기도 한 곳이다. 지금 소개하는 자미로콰이 라이브 DVD는 플레이 버튼과 함께 ARENA 원형경기장 상공을 맴돌다 그곳 무대에 멤버들을 펼쳐 놓는다.

잠시 베로나시에 위치한 아레나 콜로세움을 스케치해 본다. 저녁이 되면서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시끌벅적하던 골목과 광장들이 고요해 진다. 비로소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서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청중들이 이 유적지로 모여든다.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해마다 오페라 축제가 열리며, 화강암 질감의 백색무대는 조명의 마술에 따라 수시로 색상을 바꾼다.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마이크 수음이나 별다른 음향효과 없이 가수들의 노래는 난반사나 불투명한 느낌이 전혀 없이 전달된다고 한다.

Yanni의 Acropolis 공연이 그려하고, Eric Clapton의 Hyde Park 라이브가 그려하듯, 실내가 아닌 야외 라이브는 무언가 독특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야외 라이브야 말로 가장 원시적인 태초인류의 Ballad Dance”라고...

음악 라이브공연과 DVD 제작환경, 그리고 Acid Jazz

얼마 전에 자미로콰이의 서울 내한공연이 있었다. 1991년 데뷔이후 처음이었고 이틀에 걸친 공연이었는데, 연예기중계며 각종 일간신문과 뉴스, 보도 자료에 그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걸 보며, 정말이지 필자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다.

필자는 평상시 실제 콘서트 영상에서 잘못 보여 지는 지루함과 비현장감 등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분석위주의 연주, 레슨 영상을 보는 습관 때문에 잘 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미로콰이 라이브 DVD는 처음으로 끝까지 즐기면서 볼 수 있었던 큰 전환점을 주었다.

좀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점이라면 음질이 상당히 깨끗하다는 것이다. 대개 야외에서 더구나 비가 오는 악천후였는데 이런 사운드가 나왔다는 건 “후녹음”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 속의 미흡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더빙하듯 콘서트 영상도 더빙을 한다는 것에 큰 태클까지 걸 필요는 없을 듯 싶다.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느끼고 영상이 뛰어나면 사람들은 영상에 집중되어 음성은 어느 정도의 상태면 만족스럽게 느낀다(마치 52" Full HD TV수상기를 보며 느끼는 것처럼)는 것이다. 굳이 귀에만 의식하여 듣지 않는다면 정규 스튜디오 앨범 못 지 않은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 라이브 앨범은 녹음의 집중이 아니라 보여주기에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이다.

서두에 말했듯이 야외 공연장에 맞춤식으로 이 DVD 또한 치밀한 아이디어와 영상, 음향, 조명 스태프, 악기 테크니션 등 수많은 연출력이 한몫을 한다.

일단 5.1채널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 밴드(jamiroqua)는 넓은 음역대를 잘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뷔 당시 로우파이(lo-fi; hi-fi와 상반되는 용어로서 hi-fi 고음질의 음반시장이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전의 mono 음악들을 칭하던 것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소울(soul)과 펑키(funky) 음악을 재해석하는 밴드들의 등장으로 lo-fi는 음악녹음과 라이브 SR의 또 다른 설계 및 탄생을 지칭한다)를 지향했고, 독특한 미들 톤(middle tone)의 베이스 연주와 LPF(low pass filter; 저역통과필터)가 걸린 듯한 드럼사운드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그루브(groove) 였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초저역대의 베이스음과 신디사이저음원 등을 중무장한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댄스를 도입하면서 그들의 라이브는 과거와 달랐다. 음악의 다양성이라고 칭하고 싶다. 현대 음악의 하이브리드적 퓨전과 복고성.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라이브 DVD의 5.1채널 해석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다.

첫 곡 등장과 함께 와우(wah) 기타 이펙트 사운드와 하이햇(hi-hat)의 서라운드 구현, 그리고 등장하는 초저역대 베이스 슬라이드음은 꼭 클럽에 온 듯, 이미 관객과의 혼연일체가 되어 비를 맞고 맥주를 마시며 광분해가는 군중 속에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Multi User ◎

정종원 · KBS 기술관리국 기술기획팀
+ 페스티벌과 그루브의 향연~Jamiroquai Live in Verona 2002 DVD

한편, 이 라이브 DVD는 이탈리아의 TV다큐멘터리 팀에서 직접 제작에 참여했을 정도로, 15대의 많은 카메라맨이 360도 셔터의 연출이 가능했던 만큼 조그마한 부록이 하나 더 있다. Multi Angle Track이란 것인데, 말 그대로 본 트랙과 별도로 편집을 한 트랙이다.



【멀티앵글트랙 소개 화면】



【멀티앵글(악기별 초소형 고정식카메라)】



【멀티앵글 camera rail(보컬용)】



【베이스용 멀티앵글 소형 카메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정 및 이동 ENG 카메라 외에도 드럼, 기타, 베이스, 코러스 등에 맞춤형으로 초소형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영상의 즐거움이 있어 현존하는 가장 그루브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조하는 애시드 재즈 밴드답게 악기별 배치와 밸런스, 그리고 공연장의 음장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물론, JAY KAY라는 프론트맨(VOCAL)이 워낙 소맨십이 화려하다보니 전체적인 사운드가 다소 보컬에 눌린 면도 있다. 마치 솔로가수의 백 밴드처럼 말이다. 하지만, 현장감 넘치는(이 공연은 공연 내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 이펙트와 백밴드의 악기별 밸런스는 최상이다.

공연장 SR 및 악기 뱉는싱

다음은 필자가 대략적으로 스케치해 본 스테이지 및 악기별 라인업이다.



[멀티앵글 무대 상공]

공연 스테이지는 객석에서 봤을 때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좌측부터 guitar-vocal-chorus, 2층 좌측부터 synth1-bass-synth2, 3층 좌측부터 percussion-drum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 시각적인 효과(카메라맨은 공연 내내 스테이지 상공을 촬영하고 있다)도 볼만하다. 보컬은 보통의 가수들과 다르게 큰 대역음폭을 쫓지 않는 JAY KAY의 특성에 맞춰 젠하이저 와이리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는 LINE6 VARIAX guitar ⇒ Hughes Kettner amp ⇒ Cabinet 2기 ⇒ 스테레오 마이크 수음, 베이스는 YAMAHA TRP 5P bass ⇒ ASHDOWN PRE ⇒ 800W POWER ⇒ Cabinet 2기 ⇒ Line Out을 하고 있다.



[보컬용 젠하이저 와이리스 마이크]



[기타앰프 스테레오 마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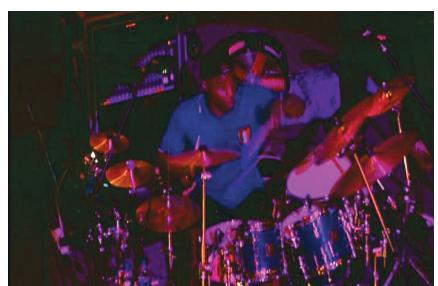


[베이스앰프 헤드, 케비넷, 랙 등]

여기에 리듬은 퍼쿠션과 드럼이 좌, 우 대칭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여느 재즈나 소울펑키밴드처럼 그루브의 침맛을 살려두기 위해선 이처럼 기본 비트와 곡의 악센트를 표현하는 드러머와 곡 소절마다의 양상별과 다양한 타악 효과를 겹들어 주는 퍼쿠션니스트가 공존하게 된다.



[퍼쿠션 세트]



[드럼 세트(SONOR)와 마이킹 전용 콘솔렉]

다음으로 스테이지 모니터는 보컬 메인스테이지에 4대, 메인스테이지에 5대, 악기별 각 1대 씩 세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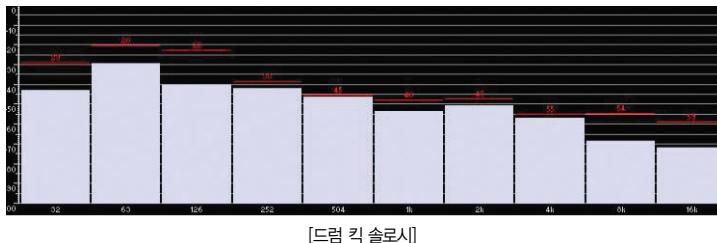


[보컬 메인스테이지(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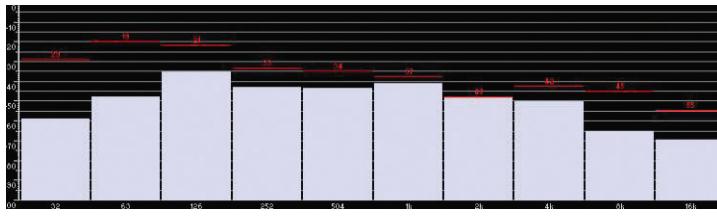


[메인스테이지(5대)]

다음으로 악기별 주파수대역 스펙트럼 분석이다. 드럼 킥과 베이스의 음역대가 묘하게 교차되어 확인한 밸런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150Hz대에 베이스 부스트를 80Hz대 기량에 킥을 부스트시켜 잘못하면 드럼 킥에 묻혀 들릴 수 없는 베이스음의 중저음역대를 부드럽게 부스트시켜 전체적인 곡의 라인을 밝쳐주고 있다.



[드럼 킥 솔로시]



[베이스 기타 솔로시]

마지막으로 공연장 SR은 일반 라이브 클럽 실내처럼 음향이 고려되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 보니, 스피커를 스택형과 플라잉형으로 조합 세팅하여 원거리의 객석 및 상단의 관객까지도 충분히 음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I'm hoping tonight will be one of those beautiful balmy evenings.



I'd been there before and I thought, "I'm doing a gig there."

라이브를 마무리하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유명 팝스타들의 내한공연이 자주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이 동그란 플라스틱 한 조각이 단순한 “공연 비디오” 이상으로 “영상자료”와 “소장품”的 가치를 지닌다면 아마도 그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이 DVD를 소장할까 말까에 경제적인 이유로 망설였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근 디지털 압축기술의 고도발달로 정규 DVD를 RIPPING하는 등의 고화질 압축 동영상 파일 또는 저가의 DVD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본연의 라이브 DVD의 맥심과 마스터링의 의미를 퇴색해 버린 채 조잡스런 편집물로 둔갑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저질 프로듀서는 Jamiroquai가 신인 평크록밴드로 격한 디스토션 기타음과 헤비한 킥드럼에 상당한 막상철학을 표현했다는 기막힌 멘트도 했었다.

필자가 아는 Jamiroquai는 1991년 영국에서 결성되어 1988년 레이브(Rave) 폭발이 훨씬 간 뒤 Incognito, Brand new heavies와 함께 “애시드 재즈(Acid Jazz)”를 태동시킨 장본인이다. 평기함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위주의 밴드답게 마음먹은 대로 청중의 흥분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능수능란한 밴드이니 무대에 이끌려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에게 설령 모르는 곡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그루브감 있고, 중음역대의 리듬미컬하게 잘 믹스된 베이스 톤과 킥드럼의 조화, 거기 에 고양이 머리털 쓰다듬듯 기타 스트로크, 록드럼의 스네어 톤처럼, 그리고 화려한 신디사이저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신나는 연주에 대강

만 발을 맞추면 어깨는 절로 음악을 탄다. 꼭 놀이동산에 온 것 마냥 킥킥대며 함성을 질러대는 광중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쳐지곤 하는데 그것만 보아도 현장의 만족도를 짐작할 수 있다. 밴드는 무대를 “페스티벌”로 만들려 노력하고, 관객들은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고, 박수치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혹, “히트곡 한번 라이브로 듣고자 했을 뿐인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많다.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의 드림씨어터가 자신들의 스튜디오 버전인 10분이 넘는 대곡을 그대로 재현(여기서 재현이란 연주자들의 정확한 악기 플레이와 보컬의 임팩트, 곡의 밸런스가 MR을 틀어놓은 듯 자신의 귀를 착각에 빠트릴 만큼이다. 충분한 곡에 대한 익숙함이 있다면 이 또한 상승효과가 있다. 하지만, 눈앞에서 웅장한 사운드가 벌어지는 벌판에서 그 무엇보다 현장의 이펙트에 믹스되어지는 묘한 에너지는 가히 글로 표현하기 힘들다. 전설적인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인 핑크플로이드의 THE WALL 라이브를 감상할 땐, 뭉클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 따라 부르게 된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악기간의 불륨이 좀 다르거나, 포인트가 꽉 살아야 될 부분이 느슨하게 넘어간다거나 곡이 괜히 길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연주의 코드도 달라져야 그 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공연에는 행복한 에피소드가 있다. 공연 중에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 공연이 잠시 중단됐다. 그러자 밴드보컬인 JAY KAY는 갑자기 애교스럽게 “Singin’ in the rain”을 흥얼거려 준다. 관객과 코러스, 밴드연주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사정 연하게 따라가는 분위기, 자리를 뜨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 주는 사람들, 옷과 운동화가 젖고 잠겨 철五四 정도로 흥건하게 비는 내리고 있지만, 관객들의 표정과 자세는 너무나 진지하고 행복에 듬뿍 젖어 있다. 세상에서 저렇게 행복한 라이브도, 여유 가득한 관객의 평온한 표정도 처음 본다.

5.1채널 사운드와 깔끔한 맑은 영상을 보여주는 고화질은 이 에너지 넘치는 화면을 생생히 재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편집 역시 역동적인 하나의 뮤직비디오로 탈바꿈되어 들끓는 에너지와 축제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듯 하다. Jamiroquai라는 밴드를 “보고자”한다면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는 THANKS TO’에 이런 구절이 있다.

“the audience for defying the rain...!!”

필자는 이 구절에 참 동감한다. 사실 이탈리아 베로나시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비를 맞으며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이 한 장의 DVD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은가? 좀 더 풍부한 리스닝룸에서 감상하게 된다면 필자의 열악한 가정용 모니터 스피커에 의존한 감동보다 몇 배의 감동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엔딩크레딧]